

	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) 보도자료 http://www.gist.ac.kr	
보도 일시	배포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.	
배포일	2020.06.11.(목)	
보도자료 담당	홍보팀 김효정 팀장	062-715-2061
	홍보팀 이나영 선임행정원	062-715-2062
자료 문의	기획팀 이석호 담당	062-715-2977

박영선 장관 지스트 방문

“광주지역 SI·헬스케어 등 창업 적극 지원”

- 10일, 지스트 학생창업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학생창업기업 애로 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
- 박영선 장관, 지스트 학생창업기업 ‘에스오에스랩’ 이 개발한 ‘라이다 센서’ 차량에 직접 시승

□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(이하 중기부) 장관이 6월 10일(수) 오후 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)를 방문하여 김기선 지스트 총장, 이현조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과 학생창업 대학(원)생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가 진행되었다.

- 이번 간담회는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과정이나 창업 초기에 느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.

□ 지스트 창업진흥센터에서 진행된 현장 간담회에는 학생(예비)창업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, 라이다 개발 스타트업 (주)에스오에스랩과 1인분 주문 특화 배달앱 서비스 ‘배달각’을 개발한 클라우드스톤(대표 김민준, 학사과정 화학전공)이 각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창업기업 운영 현황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.

-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는 열감지 카메라와 손 소독제, 마스크 등이 비치되었다.

□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“현장에서 여러분과 같은 학생창업기업이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”면서 “끝까지 포기하지 말

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린다는 희망과 꿈, 기대를 버리지 말고 도전하기를 바란다” 고 말했다. 또한 “지스트에서 AI 창업인재 육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,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가 조성되고 만큼 더 많은 젊은이들이 AI나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” 고 말했다.

□ 김기선 총장은 “지스트 인공지능연구소에서 올해부터 AI 수요 발굴, AI 분야 예비창업팀 교육 및 사업 아이템 발굴 등을 위한 ‘AI 창업인재 육성사업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” 면서, “자동차·에너지·헬스케어·문화콘텐츠 등 광주의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AI 창업팀을 육성해 지역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” 고 말했다.

□ 한편 박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지스트 학생창업기업 (주)에스오에스랩(SOS LAB, 대표: 정지성 기계공학부 박사과정 휴학)이 제작한 라이다(LiDAR, Light detection and Ranging) 장착 차량에 탑승하여 라이다 센서*를 통해 수집되는 지스트 캠퍼스 도로상황 데이터를 뒷좌석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는 시승 행사를 가졌다.

* 라이다 센서는 자율주행차량의 핵심 기술로 사용되고 있으며, 차량 내에 탑재된 다른 센서 데이터와 결합해 주행 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.

◦ (주)에스오에스랩은 최근 한국산업은행(KDB)의 리드 투자를 시작으로 98억 원 규모의 시리즈 A+투자 유치에 성공했다. 이는 2018년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만도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(68억 원)에 이은 추가 투자 유치로, 현재까지 누적 투자액은 약 170억 원 규모에 이른다. 정지성 대표는 “2021년까지 차량용 라이다를 상용화 할 예정이며, 낮은 비용으로 내구성을 갖춘 라이더를 개발하여 기술이 사람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” 고 말했다. <끝>

[사진 설명]



[사진1]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단체사진_중소벤처기업부 제공



[사진2]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박영선 중기부 장관_지스트 제공



[사진3] 지스트 학생창업기업 에스오에스랩이 만든 ‘라이다 센서’ 차량 시승_중소벤처기업부 제공